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3. 3. 21.(화) 배포 즉시	사진	x	자료	x	매수	2
담당부서	경기교통공사 (모빌리티전략팀)	팀 장	한종학 (031-860-1531)				
		담당자	박대건 (031-860-1533)				

경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와 신교통사업 및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본격 추진

- 경기교통공사·대구교통공사 주력사업 노하우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의 실시
 - 경기교통공사의 DRT¹⁾/MaaS²⁾사업과 대구교통공사의 철도사업운영 노하우 교류를 통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경기교통공사는 21일 오후 2시 대구교통공사와 주력사업인 신(新)교통사업(DRT/MaaS) 노하우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경기교통공사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기교통공사는 도 단위 최초로 통합 모빌리티서비스(MaaS) 플랫폼인 ‘똑타’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인 ‘똑버스’를 운영 중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러한 신교통사업의 벤치마킹을 위한 것으로 대구교통공사 교통정책연구원 한근수 원장을 비롯하여 주요 부서 실무진들이 경기교통공사를 방문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초석으로 양사는 스마트 모빌리티 선도사업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추진하는 등 주기적인 교류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교통공사의 도시철도사업 운영 노하우 및 양 공사 간 철도사업 공동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며, 이를 통해 경기교통공사의 향후 철도 운영을 위한 노하우를 축적할 계획이다.

한근수 대구교통공사 교통정책연구원장은 “금번 교류는 두 지역의 모빌리티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이며, 향후 대구지역 특성에 맞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연구·개발하는데 큰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양사의 교통사업 교류·협력은 상호 보완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더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내달 대구교통공사 사장을 직접 만나 협력을 강화하는 등 경기도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 1)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노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여객의 수요에 따라 운행구간, 정류장 등을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여객운송서비스
 - 2) MaaS(Mobility as a Service): 다양한 이동수단을 연계하여 최적경로와 예약·결제를 제공하는 통합교통서비스